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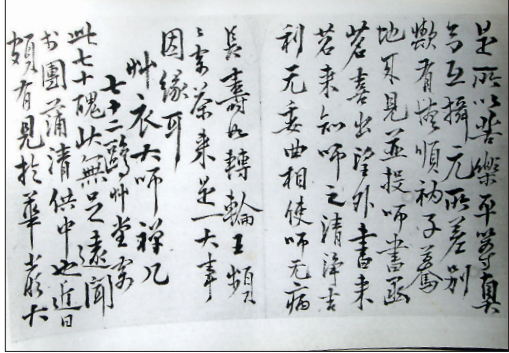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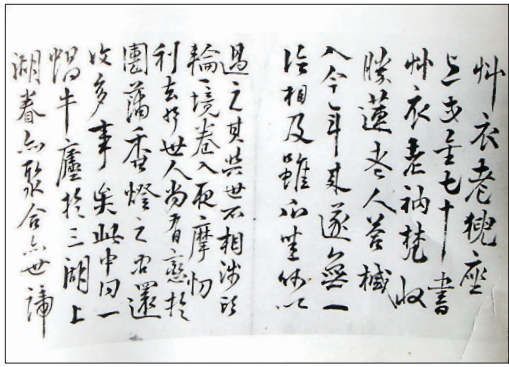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가 제주 적거에서 해배 소식을 들은 것은 1848년 12월19일 경이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 2월 26일에야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난다. 이후 소완도를 거쳐 이진(梨津: 해남군 북평면)에 도착한 것은 2월 27일이다. 이런 사실은 그가 1849년 2월 28일, 이진에서 용산 본가로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대흥사로 초의를 찾아가 사실도 드러난다. 해배 이후, 그는 삼호(三湖)에 살았다. 삼호는 지금의 마포이다. 이 편지는 추사가 유배지에서 돌아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던 삼호 시절에 보낸 것이라 짐작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의 노스님의 편지를 받고, 승련노인(勝蓮老人)이 답장하다.

금년 들어 마침내 편지 한 통이 서로 오지 않았 습니다. 비록 막혔다 하더라도 무슨 허물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는 두륜산을 경계로 서로 건너 가지 않고, 아마도리천에 들어가 끊어 버린 것인가. 세상 사람은 오히려 수행하는 것을 그리워하니 도리어 다시 일이 많고 바쁩니다. 이런 중에 집 없는 달팽이 같은 (내가)삼호에 오두막을 지어 삼호에 권속이 모두 모였으니 또한 세속적인 입장에서 고통과 즐거움은 평등한 것입니다. 참으로 차별하는 바 없이 번갈아 들어오는 것을 알겠는가. 덕순 스님이 갑자기 와서 만났고, 아울러 그대의 편지와 차를 전해 받았는데, 바라지도 않던 편지와 차가 당도하니 기쁩니다. 그대도 청정하고 길하고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가져온 스님에게 그 곡절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대는 전륜왕처럼 무병장수하여 자주자주 차를 보내주시시오. 이는 일대사의 인연일 뿐입니다. (衲衣老納梵

“무병장수... 자주 차를 보내주오”



유배지에서 돌아와 썼던 추사의 편지

收 勝蓮老人答 械 入今年來 遂無一信相及 雖瓜哇何以過之 其與世不相涉 頭輪一境 卷入夜摩 摩利去耶 世人尚有戀於團蒲香燈之間 還復多事矣 此中同一蠅牛 處於三湖上 湖春亦聚舍 亦世諦是 所以苦樂平等 眞知互攝無所差別歟 有德順納子 簾地來見 毘殺師書函若 喜出望外書來若來 知師之清淨吉利 無委曲相使 師無病長壽如轉輪王 頻頻寄茶來一大事因緣耳

추사가 '금년 들어 마침내 편지 한 통이 오지 않

았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한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듯하다. 이 편지에서 추사가 말한 '금년 들어'란 언제일까. 대략 1850년경이라 짐작된다. 이 무렵, 그의 일상도 어느 정도 여유를 회복했던 가 보다. 이는 그가 고통과 즐거움이 '참으로 차별하는 바 없이 번갈아 들어오는 것을 알겠는가' 라고 말한 점이나, '비록 막혔다 하더라도 무슨 허물이겠습니까' 라는 느긋함에서도 느껴진다. 하지만 빛의 소식이 못내 궁금했던 그였기에 '세상과는 두륜산을 경계로 서로 건너가지 않고, 아마도리천에 들어가 끊어 버린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 추사의 해학적 언어 구사는 이런 대목에서 빛난다.

그에게 벗의 편지와 차를 전달해 준 덕순 스님에 대한 고마움도 '갑자기 와서 만났고' 아울러 그대의 편지와 차를 전해 받았다' 한 것에서 뚜렷하다. 실제 덕순 스님의 내력은 자세하지 않지만 추사와는 면식이 있었던 사이로, 초의와 관련이 깊은 대흥사 승려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추사는 그리도 잊지 못하던 초의가 당도했는데도 '바라지도 않던' 것이란다. 하지만 '그대는 전륜왕처럼 무병장수하여 자주자주 차를 보내주시오' 라는 말이 추사의 솔직 담백한 심정이었다. 아울러 이 일이 일대사의 인연이라니 이는 초의에게 보인 추사의 깊은 속내였을 것이다. 따라서 추사에게 초의는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 같은 존재였고, '초의차'는 추사자신을 교화하는 방편이었음이 분명했던 것이라 하겠다.



박중훈(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직지인심’ 포교는 자신 낮추는 수행

곽명희 (제 8대 포교사단장)

‘마하 반야바라밀’ 가사에 맞춰 흥겹게 리듬을 타는 나무젓가락이 장단을 맞춘다. 음정도 고르지 않고 제멋대로지만 어쩔지 어깨를 들쭉이게 하는 흥이 노래에 실려 있다. “아버님 뭐하세요? 누가 반야심경에 곡조를 붙여 부른대요?” “이렇게 하나까 외우기도 편하고 안 신나냐. 듣는 부처님도 신날 거다.”

포교대상 1호는 시아버지 “아버님 많이 아프세요? 같이 반야심경 할까요?” 고관절이 깨진 후 알아듣게 된 시아버지를 일으키던 문수행 보살이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장단을 맞추기 시작한다. 시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예의 그 곡조다. “마하 반야바라밀다 심경 관 자재 보살~”

며느리의 손잡단을 박자삼아 270음을 다 부른 시아버지가 다시 자리에 눕는다. 다음날 새벽, 시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버님이 불교신자는 아니셨지만 적적하십니까 사경을 추천해 드렸죠. 그 후로 노인정에 있으시다가도 사경이 하고 싶으신지 집으로 오시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신심이 강하셨죠. 신문지를 공책삼아 연습한 걸로 따지면 아마 한 트럭은 족히 넘을 거예요.”

나이 여든에 시작한 사경에 재미를 붙인 시아버지는 금강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 사경하는 경전마다 모두 외워버렸다. 그날 읽은 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부를 점검해주는 등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누구보다 대화를 많이 했다. 모든 일상 대화에 경구가 녹아 있을 정도였다.

떠나기 전 며느리 품에 안긴 시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했다. 이리저리 불교 공부하러 다닌다고 많은 시간을 시아버지 곁에 있지 못한 며느리는 헤드린 것이 없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리 한 쪽이 짧은 장애를 갖고 계신 시아버지였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와주시려는 모습은 그대로 며느리에게 경이였다. 농로로도 많이 들으면 섬섬할 소리를 전혀 입에 담지 않았던 너그러운 성격 또한 본받을 덕이었다. 돌아보니 부처님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이 맞는 말씀만 한다”며 고개를 끄덕이던 시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문수행 보살은 시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불교공부를 되돌아보게 됐다. 기도입재를 하면 하루도 빠짐 없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뿌듯해 했지만, 정작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절에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아버지는 불교를 알게 되어 생긴 즐거움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녔던 분이였다. 문수행 보살이 포교사가 된 후 처음으로 불법을 전해준 사람은 시아버지였던 것이다.

최초의 여성 포교사단장 되다 곽명희 제 8대 포교사단장은 최초의 여성 포교사단장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부산, 전북, 강원 등 전국 지역단 13곳과, 5천명의 포교사들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꾸준히 불법 홍보에 헌신한 것 외에도 포교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힘쓴 공로가 인정되어 임명됐다.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몸소 앞장서서 실천해 보여주는 자리지, 명예를 쫓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위해 만난 곽명희 단장은 조직의 수장이라는 ‘권위’ 보다는 인정많은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수더분한 모습이였다. 한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느껴지는 고집이 우연찮게라도 말에 묻어나오는 법이 없었다. 말은 유순했고 화장이 없는 얼굴은 정갈했으며 표정은 편안했다.

어떻게 평범했던 주부가 전국 단위의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을까. 곽 단장이 본격적으로 불교 포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다. 마흔이 돼서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자 마음먹고 들어간 불교대학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 자신도 깨닫고 타인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자각타타(自覺覺他)의 마음으로 포교사 시험을 쳤다. 2000년, 포교사단이 출범한 해였다. 그는 그 해 포교사 품수를 받았다. 재미있는 우연이었다.

조계사 신행상담실에서 상담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활동하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불교를 모르는 이들에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불법을 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교사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상담팀에 있으면서 청소년 교화시설에 다녔다. 감수성 예민한 10대 청소년 아이들이라 말 붙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인사만 하고나면 으름, 잘 지냈냐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이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을 전해준다는 것은 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절의 ‘자’자를 꺼내기까지 1년이 걸렸다.

“어느 날 두 명의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며 제 분을 못 참는 아이가 좀 진정되는 듯하자 다가가 슬쩍 말을 걸었죠. 화를 내니까 자기도 더 화가 나고 타인도 화나게 하는데 그렇다면 화를 안 내는 쪽이 더 낫지 않아요. 아이는 ‘그럼 화를 어떻게 푸냐’고 물었고 저는 살아보니까 절을 하는 것이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대답했죠.”

아이들의 사회적인 훈련과 취업훈련을 돕는 교정교화 시설이었기에 간간히 아이들이 제빵공장에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곽 단장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당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일이라면 부처님 또한 환영했을 것이다. 지금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좋았다. 시간이 흘러 아이 한 번이라도 곽 단장의 말을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곽 단장은 한 울 한 세상을 불연의 실을 꿰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말수도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 대로 컸으면 상담팀에서 봉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절에 다니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곽 단장의 고향인 동해 집에서, 앉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대원사라는 절은 곽 단장 인생에서 결정적 장소가 되었다. 불연을 맺은 것도, 성격이 바뀌게 된 것도, 남편을 만난 것도 바로 대원사에서였다. 열 살 무렵, 스님이 귀엽다며 주는 과자를 받아먹었던 다닌 것이 계기였다. 고등학교가 되어서는 학생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당시 대원사는 다양한 행사 개최를 비롯해 학생법회는 물론 합창단도 운영하고 한문도 가르쳐주는

어릴 적 맺은 불연이후 줄곧 불교 수행 조계사 불교대학 다니며 신행상담 시작 포교사단 출범한 2000년 포교사 품수

이후 상담팀에서 활동하며 홍보팀 조직 홈페이지 개설하는 등 홍보 기틀 닦아 ‘좋은인연’ 봉사하며 노인복지 힘써

등 교외활동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을 때였다. 강원 지역 사람들이 모여 합동체육대회를 할 때면 일이 편지를 써서 인편에 전달하고는 했는데 당시 고등학교이던 남편은 곽 단장이 쓴 우편물에 몰래 편지를 끼워넣곤 했다. 인연을 이어준 곳이니 더욱 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혼 후 남편이 청년회 회장을 맡으면서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대원사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됐다. 아이는 신도들이 봐주고 남편과 곽 단장은 열심히 절일을 거들었다. 곽 단장은 서울로 이사 온 후에도 10년 동안 집 근처 관음사에 부지런히 새벽기도를 다녔다. 아직도 반야심경을 아침마다 염송하는 곽 단장은 불교를 접한 이후로 한 번도 공부를 놓아본 적도, 쉬 적도 없다.

2000년 이후 곽 단장은 본격적으로 중앙 포교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포교, 환경, 복지, 문화 등 14개 분야에서 팀이 꾸러지는 동안 포교사가 뭐하는 직업이냐고 묻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군대, 경찰은 물론 통일, NGO 등 여러 곳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를 모른다니 아니다 싶었다. 포교사단 내 홍보팀을 꾸렸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자비로 구입한 카메라로 활동모습을 찍은 사진을 불교 언론사 등에 보내며 포교사들의 활약상을 불자들에게 알렸다. 또한 전국의 지역단마다 2명의 홍보위원을 두어 활동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 서로 포교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포교사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포교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월보와 뉴스레터



곽 단장의 가족사진. 가운데가 곽 단장의 시아버지이다.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각 종단 중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 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신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탁 - 혜은 합창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교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